

#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 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

광주시의 청년정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50점) ▲청년 삶·환경 반영(30점) ▲청년참여·주도성(10점) ▲청년정책 홍보(10점)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각 시·도에서 제출한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7대 분야별 대표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했다.

광주시는 대표과제로 ▲일자리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 ▲주거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교육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금융 '청년드림은행' ▲복지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문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GCC사관학교)' ▲참여·권리 '광주청년위원회 운영'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전략산업 인재 육성과 취·창업률 제고에 기여한 '일경험드림',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 '인공지능사관학교', 문화



국무조정실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청년 삶의 질 향상 인정

## AI사관학교 우수사례 소개... 일경험드림·청년일자리공제 호평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GCC 사관학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 청년 금융 안전망 구축에 앞장선 '청년드림은행',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한 '청년위원회' 운영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사관학교는 10개월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표 우수사

례로 소개됐다.

평가단은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00여 명에게 인건비 및 직무경험을 제공한 '일경험드림'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들이 2년간 1000만원을 모아 지역에 안착하도록 돕는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시민과 함

께 공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에서 청년정책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답자 475명에게는 커피 쿠폰이 지급되며, 당첨자는 7월28일 발표된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AI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정책을 강화해 청년이 일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디지털 독서 시대를 맞아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독서 진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7월 한달간 이야기 책과 코딩을 융합한 독서 연계형 코딩 강좌를 진행한다.

남구는 30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한 2025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면서 "구립 문화정보도서관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디지털 독서환경 변화 기류에 발맞춰 아

## 광주 남구, '책·코딩 융합' 디지털 독서 선봬다

### 7월 한달 동안 메타버스 코딩 강좌 운영

이들의 독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으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한 100개 도서관을 선정했다.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은 이번 공모에서 그림책과 연계한 메타버스 코딩 프로그램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코딩 강좌 프

로그램은 독서 활동과 인공지능 블록 코딩을 활용해 게임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좌는 사전에 참가 접수를 마친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참가 학생들에게 주제 도서인 '쓰레기는 우주에도 있다'와 '다짜고짜 배구' 책 2권을 무상으로 증

정한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난 뒤 도서관 사서와 함께 읽고 게임과 질문 퀘리지, 만다라트 작성하기 등 워크북을 활용한 독후 활동을 전개한다. 또 독후 활동을 끝마친 후에는 전문 코딩 강사와 협업체 게임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코딩 강사는 학생들과 협업체 주제 도서와 연계한 코딩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은 '우주 쓰레기 청소 대작전'과 '나만의 배구 경기' 게임을 만들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자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자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자활 한마당' 행사는 지역자활센터 간 상호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유도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북구 지역자활센터 3개소(동신·일터·희망 지역자활센터)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 북구, 자활사업 참여자 화합의 장 '자활 한마당' 열린다

### 2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500여 명 참석

이번 행사는 '같이 하는 오늘! 가치 있는 내일'을 주제로 자활사업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레크리에이션 ▲화합의 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자활사업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기념 촬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참여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레크리에이션이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자활사업 참여자 노고 격려와 단합을 위한 화합의 장이 4시간 동안 펼쳐진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활 현장 최일선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계신 종사자들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자활사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자활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작년 말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자활기업 공공기관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자활 근로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송현근 기자



## 서구,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로 우뚝 서다

### 전국 최초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30일 선포식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경제 회복과 공동체 상생경제 실현에 본격 나섰다.

서구는 30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착한도시 서구,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을 개최하고 18개 동 119개 골목형상점가 100% 지정 완료 공시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과 119명의 상인회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장,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선포식은 미디어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서구 골목상권 변화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홍보영상,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 추진결과를 미니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낸 극단 각지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서 119명의 상인회장과 함께한 퍼포먼스, 주요 내빈과 상인 대표들의 '착한도시 서구,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 점등식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통해 약 100일 동안 추진됐다. 서구는 지난 3월부터 상권 실태조사, 상인 의견수렴, 구체적인 상권 범위 조정 등 실무 절차를 거쳐 모든 동의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상생모델을 완성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구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으나 서구는 음식점, 병원, 카페, 주유소, 미용실, 학원 등 생활 업종 전반으로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혔다. 서구 관내 1만7천여 개 점포 중 가맹 제한 업종을 제외한 1만 1400여 점포가 대상이다.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리

고 있으며 상인들도 최근 10~20% 매출 증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한 상인회장은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골목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골목상권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서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골목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절박한 마음, '골목이 공동체의 뿌리'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며 "100일만에 현실이 되었다"며 "서구에서 피어난 희망이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영상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첫 업무지시가 바로 골목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이런 국가적 과제를 빠르게 실행했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광주 서구의 모델이 전국 자치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중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7월부터 매주 주요 골목형상점가를 직접 찾아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 현안을 챙기는 '구청장 골목현장 집무실'을 운영하고, 구청장실에 '골목경제 상황실'을 설치해 골목상권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는 상인에게는 제도적 보호막,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경제 인프라"라며 "후속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 골목경제가 지역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교실에서  
찾은 희망,  
희망을 키우는  
광주교육